



2023. 6

제21호 e-세계농업

❖ 세계 식량안보 관련 지표 동향

❖ 국제 농업 정보

- (1) 글로벌
- (2) 미국
- (3) 일본

❖ 세계농업브리핑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명예선임연구위원

- 편집부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상 현 연구 위 원

- 편집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정 섭 선임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경 필 선임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명 기 선임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은 미 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 자 춘 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 대 석 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 찬 희 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 영 아 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 원 규 부 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수 석 시니어이코노미스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시니어이코노미스트

경 상 대 학 교 전 상 곤 교 수

전 남 대 학 교 문 한 필 교 수

「e-세계농업」은 홈페이지(<https://www.krei.re.kr/wldagr/index.d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락처

허 장 편집위원장 (명예선임연구위원) heojang@krei.re.kr (Tel. 061-820-2357)

김상현 편집부위원장 (연구위원) sanghyun@krei.re.kr (Tel. 061-820-2280)

박동주 편집간사 (연구위원) pdj8365@krei.re.kr (Tel. 061-820-2167)



세계 식량안보 관련 지표 동향 - 세계은행 자료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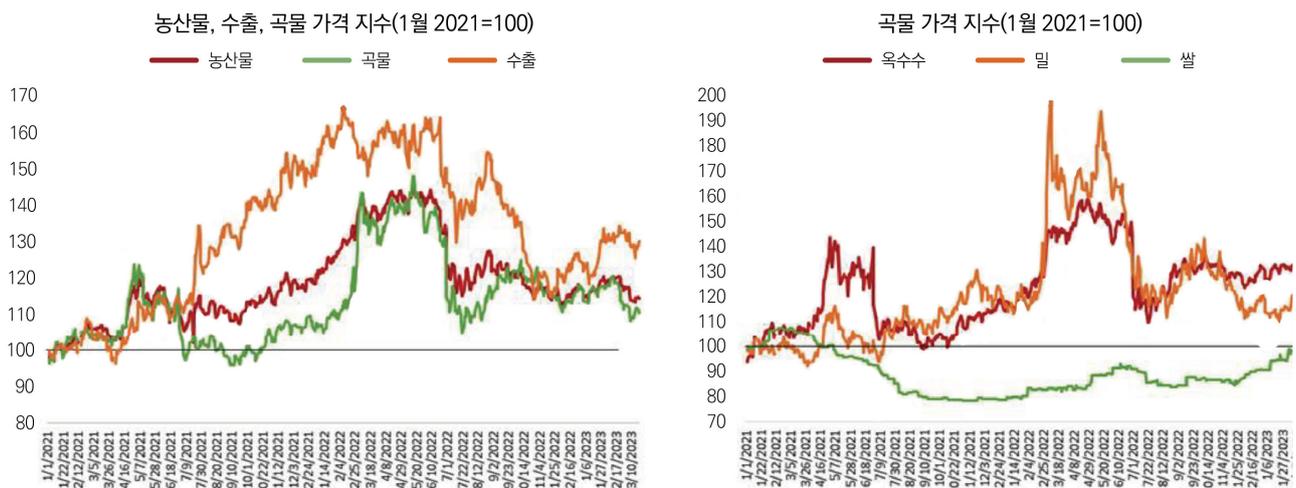
권태진*

“본 고에서는 세계은행 자료를 중심으로 농산물 및 식품 가격지수, 러-우 전쟁 이후 국제 비료 시장, 흑해곡물협정의 연장 내용 등을 통하여 식량안보 관련 지표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1 글로벌 농산물 가격지수 동향

- 전체 농산물, 곡물, 기타 농산물의 가격 지수는 3월 초 대비 각각 3%, 2%, 2% 하락했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옥수수과 쌀 가격은 1%, 밀 가격은 2% 하락하여 세 가지 곡물 모두 하락했다.
 - 옥수수 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2022. 3. 24) 1년 전보다 13%, 밀 가격은 거의 34% 하락했다.
 - 쌀 가격은 1년 전보다 17% 더 높아졌지만 최근에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옥수수와 밀 가격은 2021년 1월보다 각각 22%와 4% 높지만 쌀 가격은 4%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1)

그림 1. 농산물 및 곡물 가격 동향(명목 지수)



주: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의 일별 가격. 수출 지수는 코코아, 커피, 면화를 포함하고, 곡물 지수는 쌀, 밀, 옥수수를 포함한다.
 자료: 세계은행 상품가격 자료

* GS&J Institute 시니어이코노미스트(kwontj@gsnj.re.kr)



2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 지표

- 각국의 국내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식품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동월 대비 변화로 측정)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2022년 11월에서 2023년 2월 사이 거의 모든 중·저소득 국가에서 높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저소득 국가의 88.2%, 중·저소득 국가의 93.0%에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5%를 초과하였다.
 - 상·중소득(Upper Middle Income) 국가의 89%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가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고소득 국가 역시 85.7%가 높은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 식품 가격의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는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남아시아, 유럽 및 중앙아시아이다(그림 2a). 전 세계 161개 국가 중 146개국에서 식품 가격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그림 2b). 명목 및 실질가격 기준 식품 가격 상승이 가장 높은 10개국은 <표 1>에 나열되어 있다(2022년 11월~ 2023년 2월).

그림 2a. 식품 인플레이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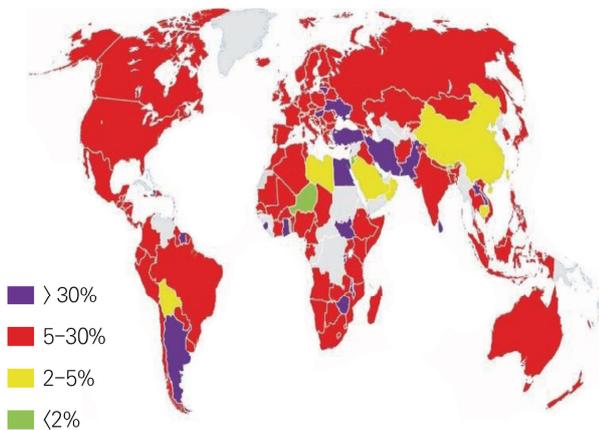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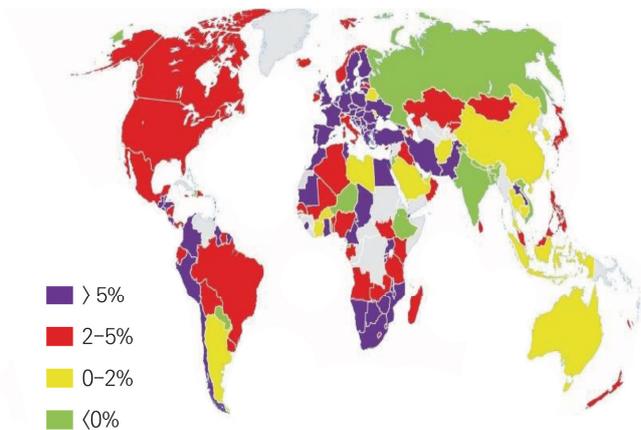


그림 2b. 실질 식품 인플레이션 지도



주: 각국의 식품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식품 성분과 전반적인 CPI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최근 달을 기준으로 한다. 실질 식품 인플레이션은 식품 인플레이션에서 전체 인플레이션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aver Analytics, and Trading Economics.



세계 식량안보 관련 지표 동향 - 세계은행 자료를 중심으로

표 1.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 상위 10개국

국가	명목 식품 인플레이션(연간 %)	국가	실질 식품 인플레이션(연간 %)
레바논	139	레바논	45
짐바브웨	138	짐바브웨	30
아르헨티나	103	아르헨티나	30
이란	73	이란	20
튀르키예	69	튀르키예	18
이집트	62	이집트	18
르완다	60	르완다	15
가나	59	가나	14
수리남	58	수리남	14
스리랑카	54	스리랑카	13

주: 각국의 식량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식품 성분과 전반적인 CPI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최근 달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식량 인플레이션은 식량 인플레이션에서 전체 인플레이션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aver Analytics, and Trading 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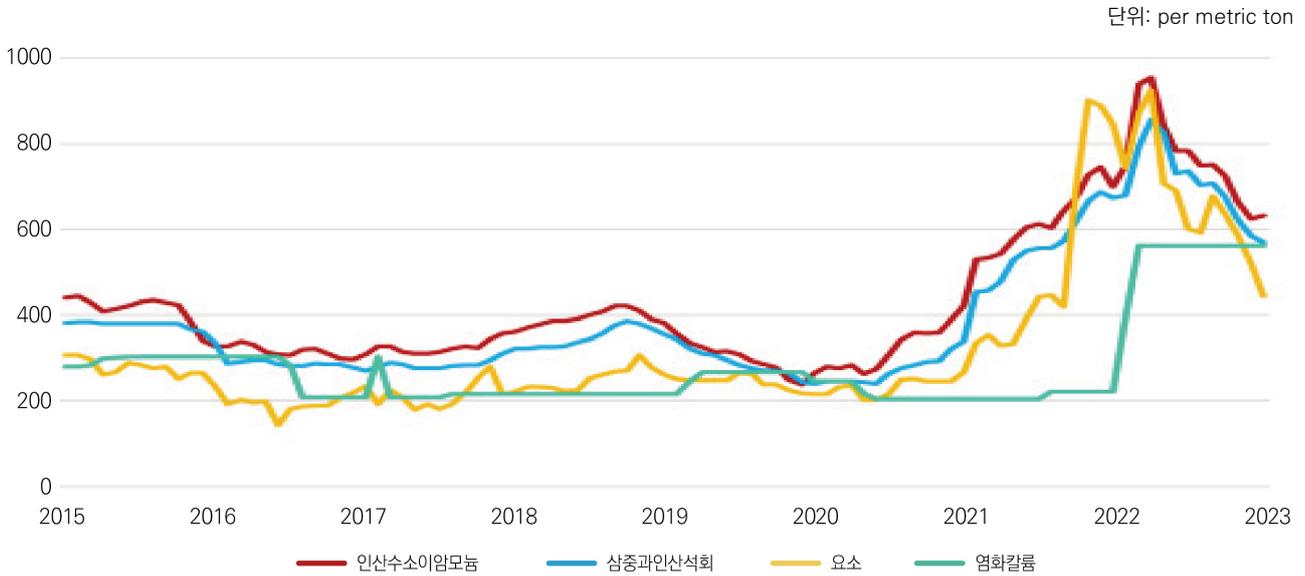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후의 비료 가격 및 무역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주요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최근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후인 현시점까지 비료 생산, 가격, 무역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 침공 직후 톤당 200달러 남짓하던 염화칼륨 가격이 600달러에 근접하여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오름세에 있던 이인산암모늄과 유안 가격은 급등 후 최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 최근 세계 식량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작물 및 비료의 공급망 불안과 높은 국제 식품 가격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국내 식품 가격은 여전히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높은 수준이다.
 - 비료 가격 역시 여전히 높지만, 공급 및 무역 연계의 변화로 인해 2022년 최고치에서 하락했다(그림 3).



세계 식량안보 관련 지표 동향 - 세계은행 자료를 중심으로

그림 3. 국제 비료 가격 동향



자료: World Bank, January 2023.

-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공급하는 비료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체 자원을 찾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지만 사정은 녹록치 않았다. 전 세계 비료 수입국의 약 4분의 3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비료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비료 공급 부족을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 등이 부과한 비료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전세계 비료 무역을 더욱 감소시켰다.
-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비료를 구매하는 비료 수입업자들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부딪혀 더 이상 이들 나라에서 비료를 구매하기 어렵게 되었다.

 - 국내에서 생산된 비료를 국내 소비에 지원하기 위해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절차를 도입한 국가들도 비료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이러한 수출 제한이 2022년 6월 기준 세계 비료 무역량의 약 20%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했다.
- 브라질은 캐나다로부터 칼륨 수입을 간신히 늘렸고 모로코는 암모니아를 수입하기 위해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로 눈길을 돌렸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소규모 수입국들은 대체 비료 공급을 확보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제비료협회(International Fertilizer Association)는 2022년 비료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5%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 식량안보 관련 지표 동향 - 세계은행 자료를 중심으로

- 국제비료개발센터(International Fertilizer Development Center)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비료 소비량을 추정한 결과, 2022년 아프리카 국가(남아공 제외)의 비료 소비는 25%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높은 국내 가격 인플레이션, 취약한 교통 인프라 및 규제 문제로 인한 경제성 부족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비료 공급 문제를 악화시켰다.
- 높은 비료 가격과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농민들은 식량 작물보다 현금 작물을 더 우선시할 수 있으므로 아프리카에서 비료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 비료 부문은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줄이고, 토양 건강을 해치고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비효율적인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비록 이 부문이 무역과 에너지 충격에 여전히 취약하지만, 2023년 비료 수급 전망은 어둡지 않다. 국제비료협회는 세계 비료 소비량이 2022년까지 7% 감소하나 2023년에는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4 FAO의 식품 가격 지수는 11개월 연속으로 감소

- FA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식품 가격 지수는 2023년 2월까지 11개월 연속 하락했다.²⁾
 - FAO 식품 가격 지수는 2월 평균 129.8포인트로 2023년 1월보다 0.6% 소폭 감소했고 2022년 3월 최고치보다 18.7% 감소했다.
 - FAO 곡물 가격 지수는 2023년 1월 이후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미국에서 한발로 국제 밀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곡물 수출업체 간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가격 상승효과를 상쇄하였기 때문이다.
 - 대부분의 아시아 수출국에서 무역량(무역 활동)이 감소했기 때문에, 국제 쌀 가격은 1.0% 하락했다.
- 앞으로 농민들은 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재배 면적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북미에서 곡물 생산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2) 세계 식량 가격지수 (FAO Food Price Index)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1990년부터 곡물, 유지류, 육류, 낙농품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가가격 동향을 점검해 매월 발표하고 있는 가격지수이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가격평균을 100으로 잡은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낸다.



세계 식량안보 관련 지표 동향 - 세계은행 자료를 중심으로

- FAO는 2023년 전 세계 밀 생산량을 7억 8,400만 톤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2023년 사료곡물(coarse grain) 수확량 전망도 밝다.
- 반면, 2022/23년 전 세계 곡물 소비는 27.8억 톤으로, 이전 시즌보다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요 곡물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5 흑해곡물협정 연장

- 세계적으로 식량과 비료의 생산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높아진 가운데 식량과 비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유엔의 중재로 흑해곡물협정이 이루어졌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022년 7월 22일 튀르키예에서 협정에 서명한 이후, 수백만 톤의 곡물과 식료품이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수출되어 유례없이 높았던 식품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었다.
 - 이 계획은 곡물과 암모니아를 포함한 관련 식료품과 비료의 수출을 위해 흑해곡물협정 만료예정일인 2023년 3월 18일에 연장되었다.³⁾
 - 2023년 5월 18일까지 연장된 흑해곡물협정은 만료 예정일 하루 전인 5월 17일 다시 60일 연장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20일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60일 연장을 고집하여 난항을 겪었지만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중재로 60일 연장을 결정하였다.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23년 3월 보고서는 흑해곡물협정이 식량 비용을 줄이고 세계 시장을 안정화하며, 개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보고서는 식량 가격이 전쟁 전보다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 2023년 3월 5일 기준, 이 계획을 통해 2,300만 톤 이상의 곡물이 수출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 계획에 따라 흑해를 통해 수출된 곡물의 49%를 구매함으로써 이 협정의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 최빈개도국들은 이 계획에 따라 곡물 수출의 6%, 선진국들은 45%를 구매하였다. 옥수수와 밀은 협정 하에서 대부분의 수출을 차지하며, 함께 선적된 화물의 77%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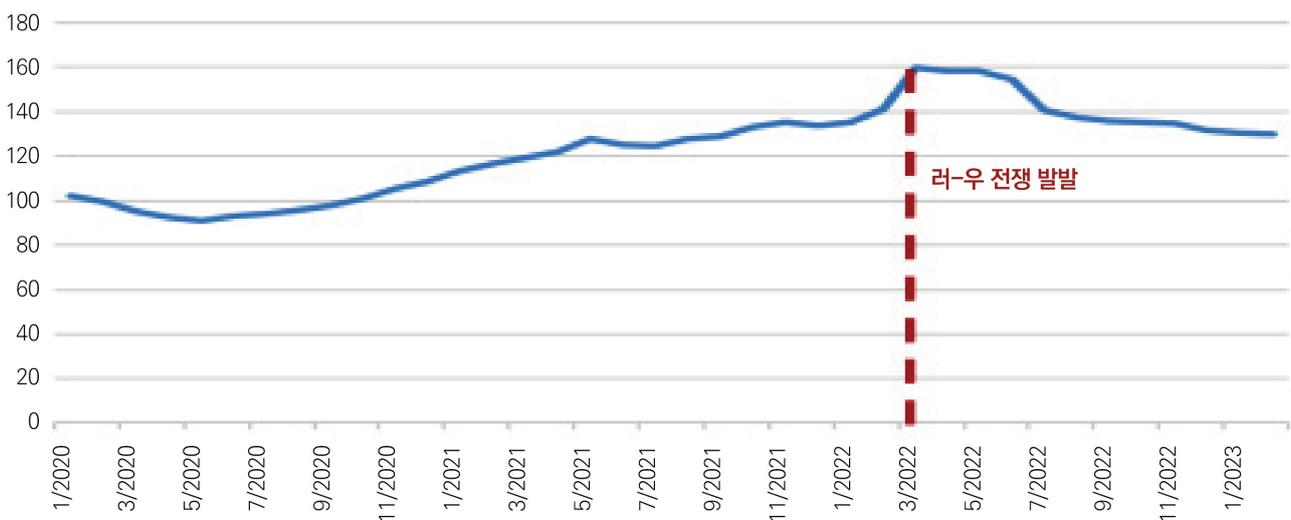
3) 흑해곡물협정은 UN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러시아가 흑해 해상운송을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 보장을 명시한 것으로, 화물선은 흑해를 통해 오데사, 피브데니, 초르노모르스크 항구를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다.



세계 식량안보 관련 지표 동향 - 세계은행 자료를 중심으로

- 이 협정은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세계 밀 공급에 더 큰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가격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도움이 되었다.
 - 비록 수출량이 변동되긴 했지만, 2022년 9월 이후 곡물 수출이 지속되었고, 국제 시장의 곡물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협정 시작 이후 우크라이나 항구에서의 선박 출항은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2021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내륙 수로를 통한 무역은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고, 대형 건조 벌크선은 강을 따라 이동할 수 없지만, 강을 따라 이동하는 무역, 특히 다뉴브 강을 따라 이동하는 경로가 매우 중요해졌다.
-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밀, 보리 수출은 2021년 수준보다 22% 줄어들었다.
 - 개발도상국으로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은 전쟁 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최빈개도국으로의 우크라이나 밀 수출은 전쟁 발발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2022년 수출량은 2021년보다 160만 톤이 나 적었다.
- 흑해곡물협정이 연장되어 부분적으로 곡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제 식품 가격은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 높은 상태이다(그림 4). 또, 식품 시장 혼란, 수출 제한, 높은 에너지 비용을 비롯해 기후 변화, 수급 불안정 요인 등 미래 식량 가격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 그림 4. FAO 식품 가격 지수 동향 |



자료 : FAO Food Price Index



참고문헌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22. Global Fertilizer Markets and Policies: A Joint FAO/WTO Mapping Exercise.

The World Bank. January 5, 2023. Recognizing and tackling a global food crisis.

The World Bank. March 23, 2023. Food Security Update.

UNCTAD. March 23, 2023. Global Trade Update (March 2023)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글로벌 농업·농촌·식품 동향

1 식량 증산 6가지 방안¹⁾

- 세계 인구수가 80억 명에 이르고, 농업환경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세계 식량 공급 전망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식량계획(WFP)·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는 ‘세계 식량 위기 대응 글로벌 네트워크’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극심한 식량 불안’을 겪는 세계 인구는 58개국 2억 5,800만 명으로 추산, 전년보다 6,500만 명(33%) 급증한 수치임.
- 2023년 5월 11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농업·식품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환경오염이 덜하면서 식량을 증산할 수 있는 6가지 방안을 소개함.

식량 증산 6가지 방안	주요 내용
1. 식품을 오래 보존하는 ‘코팅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자연기금(WWF)이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폐기되는 음식물은 25억 톤에 이르며, 이는 전체식량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양임. • 식품산업 혁신기술에 관한 책을 펴낸 리처드 먼슨은 식품 코팅 기술을 활용해 식료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어필(Apeel)의 사례를 제시함. • 어필은 농산물 껍질 등을 활용해 식용 코팅막*을 개발하였고, 어필 측은 “코팅막을 활용하면 식품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산화반응도 차단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아보카도·오렌지 등의 유통기한을 두배 늘릴 수 있었다”고 밝힘. ※ 작물의 껍질과 과육에서 지방산과 유기화합물을 추출해 섞어 만든 코팅막으로 무색·무미·무취
2. 물 부족 시대, 염분에도 견디는 ‘신품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응용농업연구센터는 “염분을 잘 견딜 수 있는 작물을 품종 개량을 통해 재배해야 한다”며 “염분에 저항력이 있는 대추야자 변종을 확인했다”고 밝힘. • 물 부족은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국제응용농업연구센터(ICBA)에 따르면, 전 세계 10억 ha 면적의 토양이 염분화되었고, 이는 중국 대륙(9억 5,970ha)보다 넓은 면적임. • 국제응용농업연구센터는 하이드로젤(물을 머금고 있는 젤), 지하 관개법(sub-surface irrigation) 등 농업용수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임.
3. 농사 효율 극대화한 ‘정밀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농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비료·물·노동력 등 투입 자원을 최소화하면서 생산량을 최대화하는 생산방식이며, 드론·센서·빅데이터 등은 정밀농업을 가능케 하는 대표적인 기술임. • 찬드라 마드라무투 캐나다 맥길대 생명자원공학과 교수는 “정밀농업을 통해 농업 생태계에 미치는 오염을 줄일 수 있다”며 정밀농업을 위해 ‘디지털 매핑’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 드론이나 센서를 활용해 세계 토양의 특성과 유형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전자 지도를 만들자고 제안함.

1)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 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식량 증산 6가지 방안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컨대 ICBA는 드론을 활용해 대추야자 농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농장과 비슷한 토양환경을 조성해 양분·수분 흡수와 손실을 측정하는 '라이시미터(Lysimeter)'와 센서를 활용한 첨단 분석법을 동원, 비료와 물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함.
4.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는 '식용곤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는 미래 식량자원으로 식용곤충을 주목하고 있으며, 식용곤충은 상용화가 된 지 오래임. • 스위스에 본사를 둔 식품기업 네슬레는 곤충 단백질과 기장, 콩팥 모양의 갈색 콩인 잠두(蠶豆)가 함유된 애완동물 먹이 제품을 출시,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인섹타(Insectta)'는 공기중 공장과 양조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등 음식 폐기물로 동태 등에 유충을 키워 동물사료로 생산하고 있음. • 먼슨은 "곤충 사육에는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빛 없이도 사계절 내내 잘 자란다"며 "오염물질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극히 적다"고 설명함. • 국내 곤충산업도 지속적인 성장세: 곤충사육 농가 수와 곤충산업 판매액은 2016년 1,600농가, 225억 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3,000농가, 450억 원으로 증가, 2010년 '곤충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종의 곤충이 식용곤충으로 등록돼 대체 단백질과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활용 중임.
5. 식량난 해소하고 열섬현상 완화하는 '도시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농업은 옥상·주말농장 등 도심에 있는 생활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활동으로 마드라무투 교수는 "도시농업은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며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폐공장이나 건물을 활용해 수직농법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수직농법은 기존의 단층재배 방식이 아닌 거대한 다층선반에서 빛과 수분을 최적의 상태로 공급하는 농업으로, 식량난과 농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등장한 개념이며,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한 수직농장은 온도·습도·빛 등 농사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기상·기후 여건에 관계 없이 안정적인 농작물 재배가 가능함. • 먼슨은 "수직농법은 작은 면적으로 더 많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며 "연중 내내 지역식당과 마트에 신선한 채소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소개함.
6.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NN은 전체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해안과 바다, 토양과 숲, 농지와 도시 등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마드라무투 교수는 "해양에서 단백질 자원을 얻고, 습지를 양식과 양어장으로 활용하며, 숲 생태계를 활용해 곡식을 재배할 수 있다"며 혼농임업(Agroforestry)과 삼림경영의 철학을 제시, 이어 농림업과 임업으로 식량 생산량을 늘리면서 저장량을 늘릴 수도 있다고 설명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5.2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OECD 국토 및 지역 정책 동향 및 시사점²⁾

1.1. 개요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와 기업 및 지역개발센터(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 Local Development)는 제48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RDPC) 본회의** (2023.4.26.~27.)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하였음.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는 도시 지역의 발전, 지역의 개발, 지역 간 협력방안 및 기타지역 현안 등을 OECD 내에서 총괄적으로 논의하는 회의로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총 2회 개최

※※ 우리나라 대표단을 비롯, 30여 개 국가의 대표들이 참석

2)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근 OECD 국토 및 지역 정책 동향 및 시사점"(2023.5.1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분쟁, 기후 변동성, 경제 침체 등 식량 불안의 원인은 다양하며, 빈곤과 불평등은 이러한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킴.

1.2. 주요 논의 사항

- 新 국제환경에서 지역의 매력도(Attractiveness) 증진방안, 장단기 도시와 비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 지역 기업의 성장 지원방안 등 그간 제기된 지역발전 정책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주요 안건〉

- 신(新) 국제환경에서 지역의 매력도(Attractiveness) 향상 방안
- 산업전환기의 지역: 지속되는 이슈들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식
- 지역 정책의 미래: 'Regional Outlook 2023' 등 소개
- 재난 위험관리: 지역의 재건과 회복 지원
- 장단기 도시와 비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
- 장소와 기업: 기업활동 성장 지원
- 기반시설: 장소 기반 및 국내 기반시설 정책에 대한 RDPC 지원

- 이 외에도 OECD 회원국의 산업 전환기의 지역 기업 발전방안, 지역적 차원의 재난 위험관리 등에 대해서 각국 참가자들이 자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논의함.

1. 新 국제환경에서 지역의 매력도(Attractiveness) 향상 방안

- 세계화와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 지역 매력도 측정은 지역개발정책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역의 관광·서비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심층 연구 진행

- OECD 연구에 따르면, 지역 매력도* 증진 정책은 실질적으로 지역의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공헌하고 있고, 특히 생산성 및 저소득 낙후지역 혹은 성장이 정체된 지역의 성장을 돕는데 기여하고 있음.

※ OECD는 현재 방문객 후기, 주택 가격, 대중교통 서비스 편의 등 14개 지역기반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 매력도를 측정

-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 상태와 우수대학 입지 유무가 FDI의 총투자 금액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함.

※ 철도, 항공 같은 교통 인프라도 외부 투자의 주요한 요소로 인근 지역을 철도로 1시간 30분 내 이동할 수 있을 때 추가적인 FDI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인재 유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저렴한 주거비, 빠른 인터넷 속도, 외국인 학생의 수가 지역의 인재 유입에 주요한 요소*로 분석되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저렴한 주거비에 만족(주거 만족도)하는 지역 내 인구 비율이 10% 증가할 경우, 외국인 노동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약 2% 증가

2. 산업 전환기의 지역: 지속되는 이슈들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식

- 지역은 더 복잡한 정책 환경 속에 노출되고 있으며, 산업 쇠퇴에 직면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OECD 회원국 중 EU 평균보다 경제소득이 낮은 지역의 주민은 기대수명 또한 낮으며, 평균보다 낮은 수입, 교육 수준, 일자리가 제공되는 지역 주민은 국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경향이 강함.

- 이에 각 지역 환경에 적합한 지역맞춤형(장소 기반)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와 기업인 등 지역 이해관계자와 정부의 연대·협력이 중요함.

- 산업 쇠퇴에 직면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형태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기술의 급격한 변화, 생산성 저하, 인구 통계학적 변화, 자연재해 등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변화가 필요함.

- 사무국은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한 지역은 다음과 같은 지표에서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을 갖춘 지역으로 파악하였음.

- ❶ 국가 평균보다 낮은 1인당 GDP 지역, ❷ 연평균 GDP 성장률 1% 이하 지역, ❸ 3차 교육(고등 교육)을 받는 인구가 국가 혹은 유럽연합 평균보다 낮은 지역- 실업률 증가 지역, ❹ 평균보다 낮은 기대수명 지역, ❺ OECD 지역 웰빙 지표의 중하위권 지역(일자리, 소득, 공동체, 삶의 만족도, 주거, 교육, 보건 서비스 등)

- 산업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 간 연계·협력이 중요하며, 특히, 역내 중소기업 육성과 벤처 활성화 중요성을 강조함.

- 아울러, 산업구조 전환의 핵심은 높은 복지·연봉을 제공하는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이 필요함을 피력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3. 지역정책의 미래: 'Regional Outlook 2023'과 'Recommend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 사무국은 OECD 2023 Economic Outlook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는바, 더딘 경제 회복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은 완만하게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 유럽연합 5개(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국가의 지역 매력도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지역 매력도 지표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의 참여가 요구됨.
- 지역 정책은 향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인구 변화, 기술을 포함한 메가트렌드 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분석함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회원국 간 새로운 연대·협력 모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4. 재난 위험관리: 지역의 재건과 회복 지원

- 튀르키예 산업기술부(Deputy Minister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echnology)는 지진 피해 및 재건 사례를 발표
 - 튀르키예는 7.5~7.7 진도 지진*으로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11개 주가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으며, 이는 영국 전 국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임.
 - ※ 튀르키예 지진으로 전체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손실 입었으며, 국제협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복원 작업 필요
 - 피해 지역 상당수는 난민, 여성, 어린이,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으로 향후 복구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
- 사무국은 OECD 재난 피해 복구 프로그램 설명한바, 동 프로그램은 재난 피해 지역의 회복력에 초점을 두고, 금융지원, 물리적 인프라 지원, 장기간에 걸친 컨설팅과 회복력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음.
 - OECD 피해 복구 프로그램은 예방, 준비, 대응, 재건 및 복구 4가지 단계로 진행

〈4가지 단계〉

- (예방)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재해예방에 중점
- (준비) 재해 발생 시 응급사항 준비 및 시뮬레이션,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대피(탈출) 계획, 국가 재난 기금 마련 등
- (대응)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 목표. 공공 및 민간전문가들의 협력,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치, 재해 대응 시뮬레이션에 따른 체계적 대처 등
- (재건 및 복구)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필수적인 물리적·경제적 인프라 복구,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및 거버넌스 구축 등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5. 도시와 비도시 간 장단기 파트너십 강화 방안

- OECD 사무국은 비도시-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정책 주요 사항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함.*
 - ※ 비도시 정착 프로그램 제공, 비대면 근무를 위한 재택근무 인프라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로 인한 도시인구의 이동에 관한 연구 등
- 특히, 디지털화 시대 도래로 근무 형태, 이동방식, 서비스 접근방식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구 방법론도 기존 통근 데이터 중심에서 휴대폰 서비스 지역 데이터 분석 등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아울러, 재택(원격)근무 확대에 의한 도시의 확산(urban sprawl)현상이 유발되고 있으며, 도심 주변부로 주거지 이동이 발생하면서 생활 인프라 등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함.

6. 장소와 기업: 기업활동 성장 지원

- OECD는 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외부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
 - 주요 내용으로, 지역의 부패 수준은 지역과 지역 기업의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부패 수준이 높은 지역은 평균적으로 1인당 GDP가 0.6% 낮으며, 지역의 금융 접근성은 기업 성장에 중요한 사항임.
 - OECD 회원국 연구 결과 대부분의 고성장 기업은 대기업과 첨단 ICT 산업군이 아닌 성숙기에 접어든 기술 집약적 중소기업으로,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에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함.
- 노르웨이의 사례연구 결과, 지역에 따른 자본 접근성이 지역과 지역 기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크고, 오슬로 같은 수도권의 벤처·스타트업(초기) 기업에 더 많은 금융(자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장소 기반 정책의 핵심은 지역의 자본 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역 산업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이며, 지역의 자본 접근성 강화는 제조 중심 중소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도매점, 미용실, 음식점 등 생활 인프라 전반의 서비스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됨.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7. 기반시설: 장소 기반 및 국내 기반시설 정책에 대한 RDPC 지원

- G20 국가들의 급속한 도시화는 인프라 조성 및 주택 제공, 탄소 배출 같은 중요한 정책과제를 야기하고 있어, 도시화에 따른 적절한 기반 시설과 그 기반시설의 자금 조달 필요성이 증가함.
- OECD 사무국은 인프라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도시 기반 시설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도시 계획을 위한 효율적 투자 지원, 양질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도시 개발, 지자체의 민간 금융 접근성 개선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 권장 사항으로는, 정부와 정책 영역 간의 조정, 정부의 학습 능력 촉진을 통한 역량 강화, 정부의 명확한 투자 인프라 계획 조건 검토 등을 제시하였음.
- 이와 관련된 사례 발표에서 영국은 지역 단위(regional-level) 발전계획은 없고, 국가와 마을 단위의 계획이 존재하며, 지역은 중앙이 아닌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국가와 마을 단위 계획에만 초점을 둔다고 소개함.
 - 이를 통해, 영국 정부는 유연하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비도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내 상당수가 지리적 불평등(지역 간 격차)을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자금 조달과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에 지역 형평성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5.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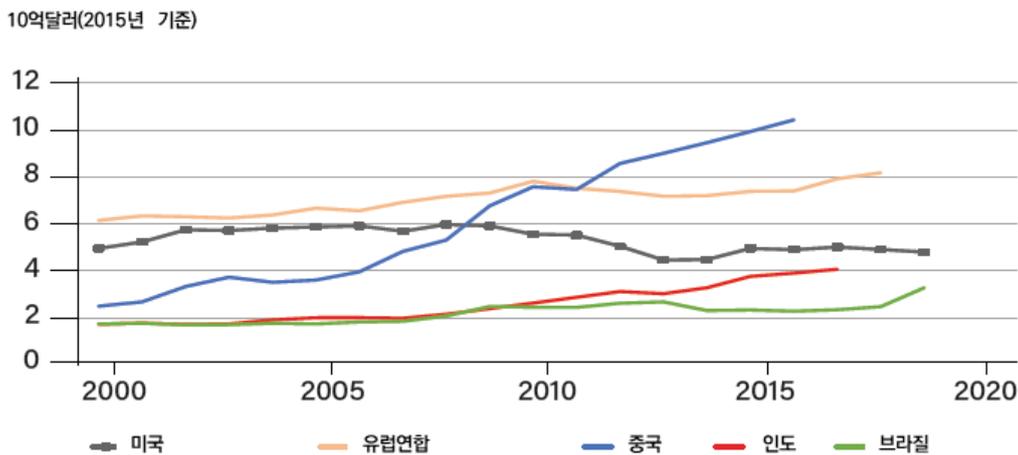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 미국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1 2022년 미국농업리뷰 - 자원과 농촌경제³⁾

- 미국의 농업 공공 R&D 투자액은 지난 20년간 1/3로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요 무역 경쟁국들 대비 투자액이 뒤처지게 됨.
 - 비용 상승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공공 농업 R&D 투자액은 2002년에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1/3 수준으로 감소함.
 - 미국 공공 농업 R&D 투자액의 2/3는 주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며, 1/3은 연방정부와 비정부 펀딩으로 구성됨.
 - 토지공여대학(Land Grant Universities)과 다른 비정부 기관들이 연구의 70%를 수행하고, 미국 농무부가 나머지 30%를 수행함.

【 주요 국가의 공공 농업 R&D 투자액 변화 】



- 세계 경제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일자리 감소는 아직 회복 중임.
 - 2019년까지도 2007~2009년 사이에 발생한 농촌 일자리 감소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2020년에 발생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일자리 감소 폭이 더 커짐.

3)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2022 YEAR IN REVIEW - The Economics of Food, Farming, Natural Resources and Rural America” (2023.3.13.)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미국

- 도시와 농촌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소비자 활동의 감소로 실업률이 증가함.
- 2021년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핵심 노동인구(prime-working-age)의 실업률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빠르게 감소함.

■ 대부분의 농촌에서 건강관리(health care)에 대한 최소 접근성만이 보장되고 있음.

- 비대도시권(non-metropolitan)*의 건강관리 서비스와 자원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은 규모에 따라 대도시권(metropolitan)과 비대도시권(non-metropolitan)으로 구분되며 비대도시권은 다시 소도시권(micropolitan)과 비중심지(noncore)로 구분됨.

- 대도시권은 인구 만 명당 6.1명의 기초 의료진(primary care physicians)과 4.1명의 치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비중심지에서는 만 명당 4.4명의 기초 의료진과 2.5명의 치과 의사가 있음.
- 인구 만 명당 평균 병상 수는 대도시권에 비해 비중심지가 많음.
- 건강 전문인력 부족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정신과 전문의의 부족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중심지의 대부분은 모든 부문의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임. 비중심지 40%는 기초 의료 서비스가 부족(대도시권은 16%)함.

■ 농경지 관개를 통하여 농업 부분이 기후변화, 자원, 시장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음.

- 관개가 되어 있는 농경지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5,800만 에이커 이상의 농지 관개가 이루어짐.
- 2017년 기준, 관개가 이루어진 농가에서는 미국 내 농업 생산액의 54%를 생산함.
- 기후변화, 지하수 감소 등으로 인해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 공급이 제한되어 기존에 관개가 필요 없던 지역에서도 관개 시스템이 보급됨. 특히, 강한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관개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을 제공해주고 있음.
-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관개는 수자원 사용의 정밀도 향상, 자동화 등으로 혁신이 이루어짐.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5.2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일본



1 축산·낙농을 둘러싼 정세와 과제⁴⁾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3년 4월 28일, 축산·낙농 적절한 가격 형성을 위한 환경 준비 추진 회의^{*}에서 축산·낙농을 둘러싼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비용 상승을 적정하게 거래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관련 관계자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생산비용 등을 가격에 쉽게 반영하기 위한 생산 및 유통단계 상황이나 대응 등에 대해 소비자 등의 이해를 양성하고, 생산비용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구조에 대해 검토함.

〈일본에 있어 축산·낙농 의의〉

- (축산물 안정 공급) ▲ 국민 생활에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 등 공급, ▲ HACCP 개념을 도입한 위생관리 방법을 생산단계에서 도입 등 안정한 축산물공급을 통한 일본 식생활 지탱
- (순환형 사이클 형성) 사료, 가축, 퇴비 순환형 사이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공헌
- (농촌 지역 유지·활성화) ▲ 경종농업이 어려운 산간지역·한랭지 등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초지 이용 및 산간 방목 등을 통한 토지 이용, ▲ 황폐 농지 유효 활용, ▲ 경관 유지, ▲ 지역 고용(가공·유통 등 관련 산업)
- (이해양성) ▲ 생산자 대응 및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이해양성, ▲ 동물 사육 관리를 통한 어린이 교육

- [자료 자급률 현황 및 목표] 2021년도(개선) 사료 자급률(전체)은 25%이며, 이 중에서 조사료 자급률은 76%, 농후사료 자급률은 13%임.

-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조사료는 초지 생산성 향상, 사료 생산조직 고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농후사료는 식품잔사사료(eco-feed) 및 사료용 짚 이용 확대 등을 통해 사료 전체 자급률을 34%(2030년도)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사료 자급률 현황과 목표 ┃

구분	2021년도	2030년도
사료 전체	25%	34%
조사료	76%(24%)	100%
농후사료	13%(87%)	15%(85%)

주: ()내 수치는 수입 비율

4) 일본 농림수산성 “畜産·酪農をめぐる情勢と課題”(2023.4.2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국산 사료 전환]** 낙농·육용우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경영비용의 30~50%를 차지하는 사료비를 절감해야 함.
 - 이를 위해 논과 경작포기지를 활용하여 사료 생산 확대, 초지 등 생산성 향상, 사료 생산조직 육성·강화, 식품잔사 등 미이용자원 이용 확대 추진 등 종합적인 자급사료 증산 대책을 통해 과도하게 수입 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축산을 국산 사료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함.
 - 또한, 지속적인 축산물생산을 위해서도 국산 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 사료 곡물 수입 현황]** 최근 사료 곡물 수입량은 약 1,3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처는 미국, 브라질, 호주 등임.
 - 대부분의 사료 곡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옥수수는 미국(805만 톤, 69%)과 브라질(181만 톤, 16%)에 수입의존도가 높음.

■ 일본 사료 곡물 수입량 ■

단위: 만 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옥수수	1,169	1,155	1,163
수수	30	25	18
소맥	30	34	38
대맥	91	95	102
기타	6	5	5
합계	1,326	1,314	1,327

-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배합사료 가격 상승이 축산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① 민간(생산자와 배합사료 제조사) 적립에 의한 통상보전, ②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 시 통상보전을 보완하는 '이상보전'(국가와 배합사료 제조사 적립)의 2단계 구조로 보전을 실시함.

-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의 이상보전기금에 소요액을 적립하여 생산자에게 보전금 교부
- 2021년도 추경 230억 엔, 2022년도 4월 예비비 435억 엔, 2022년도 제2차 추경 103억 엔

- **[축산물 도매가격 동향]** 생유, 소고기·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도매가격 동향은 다음과 같음.
 - (생유) 거래유가(종합유가*)는 계절 및 수급 환경에 따라 변동하나, 최근 생산비용 상승 등에 따른 음용유 가격 인상으로 2019년 12~2월 대비 2.7% 증가
 - ※ '종합유가': 가공유를 포함한 생유 거래가격에서 집유·송유경비 및 수수료를 공제한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 등을 가산한 것으로 농가 실수령 유가임.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소고기·돼지고기) 식육시장 경매 시 수급균형에 따라 결정되나, 소고기는 2019년도 대비 젓소는 3% 상승, 와규는 2.7% 하락, 교잡종은 11.4% 하락, 돼지고기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라 국산 돼지고기 거래가 증가하여 2019년도 대비 13.9% 증가
- (닭고기) 수입 닭고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국산 닭고기 거래가 증가하여 2019년도 대비 37.3% 증가
- (계란) 생산비용 상승과 더불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공급량 감소 등으로 인해 2019년도 대비 88.4% 증가

■ [축산물 소매가격 동향] 생유, 소고기·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소매가격 동향은 다음과 같음.

- (우유) 음용유 가격 상승에 따라 2019년도 3월 대비 9.3% 증가
- (소고기·돼지고기) 식육시장 경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설정되나 소고기는 2019년도 대비 약간 상승, 돼지고기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삼겹살은 2019년 대비 11.4% 증가
- (닭고기) 수입 닭고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국산 닭고기 거래가 증가하여 2019년 대비 11.5% 증가
- (계란) 생산 비용 증가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공급량 감소 등으로 인해 2019년 대비 28.7% 증가

■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위한 과제] 지금까지 소비자 수요에 따라 축산물을 공급해 왔으나,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 필수 요소인 사료 가격이 폭등하였음.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 분야에서의 노력 외에도 사료를 비롯한 생산비용을 적절히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격 상승에 따른 매입보류 등으로 소비량을 줄이거나, 가격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사업자 간의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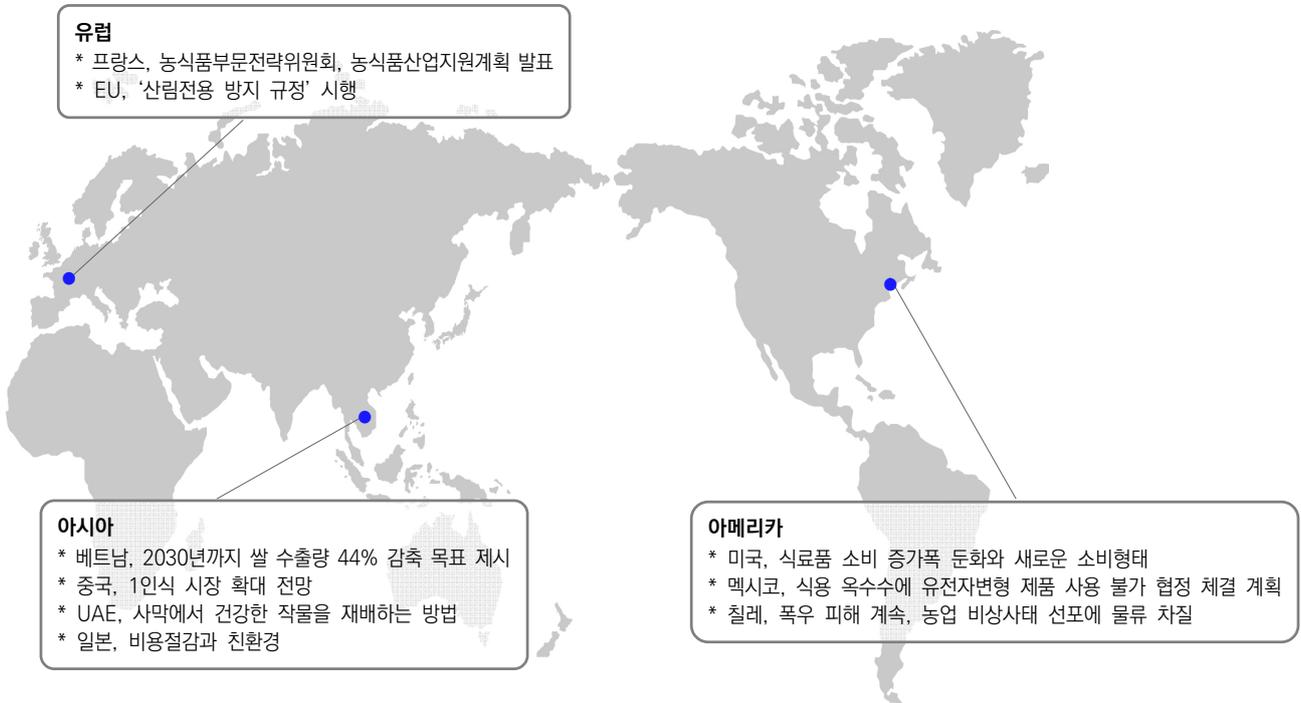
■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위한 대응 방침]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 형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생산자, 식품업자, 소비자 등 국민 각층의 이해와 지원하에 생산 비용 등을 축산물 가격에 반영하기 쉽게 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도모하여, 생산 비용 등을 적절하게 가격에 반영하여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5.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 농업 브리핑



1 아시아

1.1. 베트남, 2030년까지 쌀 수출량 44% 감축 목표 제시

- 5월 26일 베트남 정부는 2022년 710만 톤(t)에 달했던 쌀 수출량을 2030년까지 연간 400만 톤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함.
 - 베트남은 인도, 태국과 함께 세계 3대(大) 쌀 수출국임.
 - 베트남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쌀 수출액은 2022년 34억 5,000만 달러(한화 약 4조 5,645억 원)에서 2030년 26억 2,000만 달러(한화 약 3조 4,663억 원)로 감소하게 됨.
- 베트남 정부는 쌀 수출량을 줄이려는 이유로 고품질 쌀 수출 촉진과 국내 식량 안보 보장, 그리고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적응 등을 거론함.
 - 베트남의 메콩 삼각주 지역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염분이 크게 증가함.
 - 따라서, 베트남 농민들이 논농사에 불리해진 환경 여건을 극복하고자 최근 수년 동안 새우 양식에 나섬.



세계 농업 브리핑

■ 베트남 정부는 쌀 수출 시장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필리핀이 베트남산 쌀의 45%를 수입하는 가장 큰 수입국임.
- 베트남은 2025년까지 베트남 쌀 수출의 60%는 아시아 시장으로, 22%는 아프리카로, 7%는 미국 시장으로, 4%는 중동으로, 3%는 유럽으로 수출하여 쌀 수출 대상국을 다각화할 방침임.
- 베트남 정부는 고품질의 향긋하고 찰진 쌀 생산에 집중하고 저품질 곡물 생산량을 2025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15%, 2030년까지 10%로 줄일 계획임.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3.05.31.)

1.2. 중국, 1인식 시장 확대 전망

■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늦은 결혼과 비혼을 추구하는 경향이 점차 나타나 중국의 결혼율과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른바 집콕족, 나홀로족 등 자신의 취향과 생활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 캡슐 호텔, 1인 노래방 등 관련한 '1인 경제'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음.
- 식품과 외식 분야에서도 1인식의 개념이 떠오르고 있음.

■ [1인 가구 폭증으로 1인식 수요 급증] 중국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초 중국의 독거 성인은 1.25억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30년에는 1.5~2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함.

- 이에 따라 가정 구성원의 규모도 점차 작아지는 등 1인식에 대한 수요 증가 여건이 조성됨.
- 1인식은 오늘날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며 "혼자라도 밥을 잘 먹어야 한다"라는 말은 이미 많은 젊은 세대의 생활 의식이 되었음.

■ 중국의 시장정보 조사기관 미디어 컨설팅(艾媒咨询)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1인식 소비자 중 19-30세 소비자가 절반 이상, 31-40세 소비자가 30.3%를 차지했으며 1·2선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음.

- 2021년 중국의 1인 가구는 73.01%에 달하며, 월평균 음식 지출이 1,000~3,000위안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잠재시장으로써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

■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의 급속한 성장은 1인식 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세계 농업 브리핑

- 인스턴트 식품은 대부분 1인분 기준으로 제작하는 등 규격화 수준이 높기 때문임.
- 정동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쌀국수와 프리미엄 면류는 전년대비 각각 76%, 62% 증가하여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이외에도 수요가 많은 가정용 소스류에서는 1인용 휘귀 소스가 눈에 띄는 인기를 끌었음. 1인용 휘귀 소스는 기존 제품의 내용물과 큰 차이가 없지만 포장 규격이 작아져 보관과 휴대가 편리하며 디자인 수준도 높아져 사람들의 구매를 촉진하고 있음.
- 오늘날 소비자들은 건강과 식단의 영양 및 칼로리 균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소포장 조미료는 해당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시사점]** 1인 가구의 증가는 1인식 수요 증가와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귀결됨. 1인용 소포장, 혼밥, 혼술 등과 같은 1인 소비방식의 카테고리화로 새로운 1인 경제가 활발히 조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추세는 장기간 지속될 것임.
- 중국 시장 내 관련 분야에 진출하여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한국 수출 기업은 1인식 제품을 단순히 ‘큰 포장을 작은 포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1인 가구 소비자 심리 및 니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차별점 있는 제품으로 혁신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함.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2023.06.02.)

1.3. UAE, 사막에서 건강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

- 최근 UAE 내 그린바이오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 응용농업 연구센터(ICBA)는 농작물 병해를 미리 감지하는 앱을 개발하는 등 농사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기술을 새롭게 선보였음.
- ICBA 사무총장인 Tarifa AlZaabi는 Dr. Nabat라고 불리는 앱에 대해서 “이 앱은 이집트, 튀니지, 그리고 UAE의 지역 파트너들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농가와 전문가들이 농작물 병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수확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토마토, 고추, 그리고 오이에 영향을 미치는 18가지 이상의 징후들을 식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함.
- 이 앱은 아부다비 환경청의 지원을 받아 농부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도 제공하고 있음. 교육 과정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토지 관리, 작물 다양화, 유전학, 기후 변화 모델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세계 농업 브리핑

- UAE는 국토의 약 80%가 사막임. 사막화는 두바이의 식량 공급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등 주권 국가에서 UAE로 수입되던 농식품 물량이 급감한데다 가격마저 크게 올랐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신선 농산물을 포함한 식량 생산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ICBA는 UAE의 날씨와 토양 조건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사막 농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 ICBA는 로봇, AI, 센서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막 환경에서 농업을 시작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중임.
- ICBA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소금을 좋아하는 식물인 살리코니아 작물임. 소금물에서 자라는 이 식물은 다른 음식에 첨가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자연적인 품질의 소금을 생산할 수 있음.
- **[시사점]** 최근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한 농업생산 단지를 운영하는 등 보다 자급자족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내부 식량 생산 수준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음
- 현재 UAE 내 국제농업연구센터인 ICBA에는 한국 기업인 (주)아그로테크가 입점하여 물 사용량을 줄이는 토마토 재배기술 등 K-스마트팜 기술을 공유하고 있음. 이를 시작으로 스마트 농업에서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식품 산업 기술 및 연구 분야에 진출을 기대해볼 수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2023.06.14)

1.4. 일본, 비용절감과 친환경

- **[쌀의 친환경]** 구마모토현 JA키쿠치에서는 소의 사료로 수입 옥수수를 대신해 자농민의 쌀을 활용함으로써 옥수수를 수입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음.
 - 소 한 마리당 300kg의 쌀을 수입 옥수수 대신 배합사료에 섞어서 급여하는 방식임.
 - 또한 이 소고기를 독자 브랜드로 개발하였는데,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와 쌀을 의미하는 '코메'의 합성어로 '에코메 소고기'라고 함.
- 친환경 고기라는 점을 어필해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도권 지역으로의 판매 경로를 넓혔음. 또한 수입 사료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자농민 쌀을 사료로 활용해 사료비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함.



세계 농업 브리핑

- **[토마토 병충해 방제 대책으로 '미생물 미스트 살충제' 사용]** 기후현 농업기술센터는 여름과 가을의 토마토 병충해 방제 대책으로 미스트 분사 장치를 사용하여 미생물 살충제를 살포하는 기술을 개발 하였음.
 - 하우스 내 움푹 들어간 곳에 와이어를 붙여 노즐을 장착한 튜브를 고정한 뒤, 미스트에 미생물 살충제를 섞어 균주 위에 살포함.
 - 1,000㎡를 5분 만에 살포가 가능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살포가 가능하며, 미스트를 이용한 살포로 인건비와 화학농약사용의 비용 절감이 예상됨.
- 또한 화학농약과 조합하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고 함. 10일에 1회 화학농약만 살포했을 때 회색 곰팡이의 누적 발병과율은 5.2%였지만, 미스트로 주3회 살포하자 화학농약 살포의 절반인 20일에 1회로 줄여도 3.7%로 억제되었음.
- **[레이저광으로 해충 구제]** 오사카 대학교 레이저 과학연구소의 연구 그룹은 양배추 등의 야채에 해를 가하는 해충 나방의 급소에 레이저광을 맞추면 '격추'할 수 있다고 발표함. 이것이 실용화되면 살충제도 효과가 없는 해충을 무농약으로 구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시사점]**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친환경을 실천하면서 비용절감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2023.06.19.)

2 아메리카

2.1. 미국, 식료품 소비 증가폭 둔화와 새로운 소비형태

-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이 발표한 추정 자료에 따르면 4월 식료품점에서의 소비자 지출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증가하였음. 이는 2021년 7월 이후 전년 대비 가장 느린 증가 속도임. 2022년 대부분 동안 8% 이상을 유지했던 것에 비해 현격히 둔화된 모습임.
- 4월 식료품 판매는 전월 대비 0.4% 감소하였음. 지난 4월 월별 0.1% 감소한 수치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함. 이는 전체 소매 및 식품 판매가 월별 1.6% 증가한 것에 비교되는 모습임.



세계 농업 브리핑

- 지난 여름 식료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 이후 미국 정부는 식료품 물가의 하락을 추적하고 있음.
 - 소비자 물가 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4월 가정 식품 가격은 연율 7.1% 상승을 기록하여 전월인 3월의 8.4%에 비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전체 인플레이션 역시 4월에 4.9%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2021년 4월 이후 기록된 가장 낮은 연간 상승률이었음.
- 4월 모닝 컨설팅(Morning Consult)에서 조사한 소비자들의 85%는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가계 예산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가계 예산에 대해 걱정하는 수치는 1월 이후 최근까지 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의 소비 습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 많은 소비자들이 식료품 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BNPL (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임.
- BNPL 서비스는 쇼핑객이 결제를 몇 주 간에 걸쳐 나누어 함으로써 구매 비용을 분산시키는 지불 방법임. 보통 BNPL 서비스는 소비자가 컴퓨터와 같은 고액 품목을 구매할 때 지불 방법으로 사용하곤 하지만, 소비자들은 최근 기본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장기간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소비행동 변화를 보이고 있음. 식품 업체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추후 시장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2023.06.14.)

2.2. 멕시코, 식용 옥수수에 유전자변형 제품 사용 불가 협정 체결 계획

- 멕시코 대통령이 자국 토르티야 제조업체들과 유전자변형(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을 거치지 않은 흰옥수수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협정을 6월 셋째 주에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음.
 -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옥수수 수입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되는 흰옥수수에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구매가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관세로 옥수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세계 농업 브리핑

- 멕시코는 주식인 토르티야의 원재료인 흰옥수수는 대부분 자급자족하지만, 가축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노란 옥수수는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음.
- 멕시코는 유전자변형 옥수수 사용을 제한한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명령과 관련해 미국과 무역분쟁에 휘말려 있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특히 식용 옥수수에 대해 유전자변형 제품을 금지하고 있는데,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는 멕시코의 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북미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멕시코를 상대로 무역분쟁 해결 협의를 요청하고 있음.
 - 지난 6월 2일 미국 정부가 무역분쟁 해결 협의를 요청했는데, 75일 안에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는 분쟁해결심판(Dispute Settlement Panel)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토르티야를 만들 때 유전자변형이 없는 흰옥수수 품종만 사용해야 한다는 협정 보증을 긍정 평가했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흰옥수수 대체 생산지 중 한 곳인 남아프리카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수입되는 흰옥수수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품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약 50억 달러(한화 약 6조 4,725억 원) 규모의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가축과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 노란 옥수수임.
 - 미국 무역대표부(USTR, U.S. Trade Representative)는 멕시코의 새로운 계획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며, 멕시코의 이번 발표는 미국과 멕시코의 옥수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3.06.22.)

2.3. 칠레, 폭우 피해 계속, 농업 비상사태 선포에 물류 차질

- 칠레 정부가 최근 대규모 홍수가 일어난 중남부 지역에 농업 비상사태를 추가 선포했음
 - 2023년 6월 27일 칠레 정부가 며칠 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한 중남부 5개 자치구에 농업 비상사태를 발령한다고 발표했음.



세계 농업 브리핑

- 해당 지역은 주말이었던 6월 24~25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정부는 홍수 직후 이들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음.
- 칠레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 지역에서 수확물 유실 등 피해를 본 농민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식료품 등을 지원하고 실업 대책을 위한 긴급 고용 촉진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예정임.
- 폭우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으로 안데스 산맥을 통과하는 도로 일부가 파손되었고, 그로 인해 물류에도 차질을 빚고 있음.
 - 기상 악화는 칠레 도로 인프라에도 영향을 주었음. 최근 내린 많은 비로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연결하는 안데스(Andes) 산맥 지대 도로가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었음.
 - 이로 인해 칠레를 향해 출발한 물류 운송 트레일러 약 2,000여 대가 운행이 불가능해짐.
 - 칠레 정부는 운전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가까운 시일 내 통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 칠레 국영 광업 기업 코델코가 폭우로 일부 광산의 작업을 중단했으며, 피해 규모를 산정 중임.
 - 칠레 국영 광업 기업 코델코(Codelco)가 지난 주말 중부 지역의 폭우로 인해 일부 광산이 작업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음.
 - 코델코는 해당 광산의 작업 재개 가능 시점과 작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추산에 나섰다고 밝혔음.
 - 작업이 중단된 광산중에는 코델코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리 광산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3.06.29.)

3 유럽

3.1. 프랑스, 농식품부문전략위원회, 농식품산업지원계획 발표

- **[프랑스 농식품부문전략위원회 발족]** 2023년 국제농업박람회를 계기로 마크 페노(Marc Fesneau) 농업식량주권부 장관과 롤랑 레스쿠르(Roland Lescure) 프랑스 경제재정부 산업 담당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농식품부문전략위원회(Comité Stratégique de Filière Agroalimentaire, CSFA)가 구성되었음.



세계 농업 브리핑

- 위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농식품 산업은 최근 마진 축소로 인해 경쟁력 약화와 투자 적자에 시달리고, 실적 부진과 구조적 시스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어려움 요인으로는 기후변화가 꼽혔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농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임.
 - 농식품 가격이 인상되면 무역 협상이 복잡해지며, 생산 체인 전체에 걸친 '생산자-공급자-소비자' 간의 공정한 가치 창출과 이익 분배가 어려워짐.
 -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유럽 에너지 위기로 인해 농식품업계는 가격 조정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짐.
- **[농식품산업지원계획 발표의 배경]** 보고서에서 농식품 산업은 특히 다양한 부문의 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이지만, 현재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음.
 - 2000년부터 프랑스 농식품 산업의 마진은 점진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2019년부터는 더 심화되었음. 이는 농식품산업의 현대화, 탈탄소화, 생태적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며, 농식품 산업 부문의 잠재 수출 가능성 저하와 구조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음.
- 프랑스 정부는 경기침체와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 계획(Plan de soutien aux industries agroalimentaires)을 발표했음.
 - 농식품 산업의 에너지적, 생태학적, 환경적 변화를 주고, 농식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계획의 골자임.
- **[농식품산업지원계획 세부 전략]** 농식품산업지원계획의 전략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뉨.
 - 단기적 재정 지원
 - 프랑스산 농식품 수출 강화
 - 농식품 산업 안정화와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농식품 시스템 조성
- 단기적 재정 지원 전략은 다음과 같은 지원이 포함됨.
 - 세금 납부방법의 간단화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식품 기업은 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에 대한 세금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음. 고용주 기여금의 경우에도 납부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게 함.
 - 에너지 지원 시스템과 전기세 감소 장치 설치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세계 농업 브리핑

- 프랑스 상공회의소는 2023년 1월부터 에너지 가격 급등 관련 도움 대책 마련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 회사 간부들을 대상으로 유선 상담 캠페인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 외에도, 프랑스 정부는 농식품 기업일 경우, 공공재정국(DDFIP)과 사회보장기여금 및 가족수당 징수조합(URSSAF)에서 최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프랑스산 농식품 수출 강화 전략은 프랑스 농식품 생산·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 프랑스산 농식품의 새로운 시장 진출 및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지속적인 수출 지원 등 여러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2023년부터는 “식품산업 부스터” 프로그램이 도입되는데, 이는 농식품 분야의 사업가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초기 몇 달 동안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임.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예비 수출업자들은 경험자들의 노하우를 공유받을 수 있으며, 수출 관련 집단 워크숍 등에도 참가할 수 있음.
- 농식품산업 안정화와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농식품시스템 조성 전략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세부 분류됨.
 - 농식품분야 중소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 지원
 - 농식품 산업의 로봇화
 - 농업협동조합의 탈탄소화 지원
- [시사점] 프랑스의 농식품 분야 정책은 농식품 산업의 발전이 국가 미래 성장의 토대라는 인식 아래 농식품 산업 발전과 해외 수출증대를 위한 실질적 대책들이 고안되며,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더해져 실행되고 있음.
- 프랑스와 유럽의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들이 혹시나 한국 식품 수출업체들에게 비관세장벽으로 영향을 끼쳐 수입제한으로의 연결될 가능성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의 자국 농식품 산업 지원과 수출강화 정책이 한국 농산업 기반강화와 농식품 수출 정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의 사례로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임.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2023.05.25.)



세계 농업 브리핑

3.2. EU, '산림전용 방지 규정' 시행

- 지난 4월 유럽의회는 삼림 벌채로 생산된 제품의 EU 내 판매와 수출입을 금지하는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을 최종 채택했으며, 법안은 오는 23년 6월 29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될 예정임.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20년 사이 삼림 벌채로 인해 농업 용도로 전환된 산림의 면적은 4억 2천만 헥타르에 달하는데, 이는 EU 국가보다 큰 면적에 해당함.
 - EU 내에서 소비되는 초콜릿, 커피 등의 삼림 벌채 제품은 전 세계 삼림 벌채율의 10%를 차지함.
 - 따라서, EU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저해하는 산림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함. 이로 인해, EU로의 커피, 대두, 팜유 등 삼림 벌채 생산 식품의 수입이 규제됨.
- **[규정 내용 및 실사 의무 사항]** 삼림 벌채 제품일 경우, 2021년 이후 산림전용 지역에서 생산된 특정 품목의 EU 내 수출입이 금지될 예정임. 따라서, 앞으로 해당 품목의 제품을 EU로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기업 또는 사업자는 수입 및 유통 시에 ‘실사 보고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실사 보고서는 해당 제품이 삼림 벌채와 무관하고, 2020년 이후 삼림이 파괴된 땅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생산국의 시행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용도임.
- 위의 실사 의무 관련하여, EU는 18개월 안으로 산림전용 수준에 따라 국가별 위험도를 저위험(low), 표준위험(standard), 고위험(high)인 3단계로 분류하고, 국가별 위험 수준에 따라 실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예정임.
 - 저위험 국가에서 생산된 삼림 벌채 규제 대상 품목 수입 시 간소화된 실사 절차를 따르게 됨.
- 점검 비율은 국가별 위험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위험 국가일 경우 9%, 표준위험 국가일 경우 3%, 저위험 국가일 경우 1%로 차등 적용할 예정임. 실사 의무는 해당 규정 발효 후 EU 역내기업일 경우, 대기업은 18개월, 중소기업은 24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현재 국내 수출기업일 경우에는 EU기업 측에 실사 요구자료를 제출하면 됨.
- **[적용 대상 품목]** 규정의 대상 품목은 소,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목재 등 7개 상품 및 가죽, 초콜릿, 가구, 목탄, 종이 등 연관 제품이며, 2년 이내 제품 품목이 확대될 예정임.



세계 농업 브리핑

- **[규정 위반 시 조치 사항]** EU의 관할 당국은 공급업체가 제출한 지리 좌표계(geolocation coordinate) 정보 또는 위성 모니터링 도구 및 DNA 분석을 통해 대상 제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음.
 - EU 내 수입 및 판매되는 제품이 삼림 벌채 규제 법안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 관련 업체들은 EU 내에서 발생한 연간 총매출액의 최소 4% 이상이 벌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 **[시사점]** 한국은 농업용 산지전용이 적어 국내 생산 품목의 대유럽 수출에 영향은 크지 않으나, 외국 원재료를 사용하는 대유럽 수출기업에는 절차적 부담일 수 있음. 따라서, 외국 원재료를 사용하여 EU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최종 법안을 통해 규제 적용 대상 품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자료: 한국농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2023.06.22.)